



그래도 걸어야 할 길



오 세 익

40년에서 50년 넘게 인쇄업에 종사해 온 원로 인쇄인 일곱 분이 얼마전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분들 중에는 인쇄업에서 손을 뗐거나 아들에게 바통을 넘긴 분도 계시고 아직 현역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도 있다.

그러나 인쇄업에 대한 미련과 끈끈한 인연은 아직도 한결같다. 평생 인쇄사를 경영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기 때문에 삶 그 자체가 인쇄와 연결되어 있다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듯하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차라리 다른 업종을 택해 이만한 노력을 했으면 더 큰 것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회고담이 없지도 않지만 원로 인쇄인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지니고 견뎌 왔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다.

원로들은 요즘 아쉬움과 섭섭한 심정도 내비친다. 인쇄사 규모와 시장도 넓어지고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인쇄인들의 화합 풍토는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물질만능 풍조와 팽창 일변도의 경영방식 때문에 인쇄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심정도 숨기지 않는다.

IT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업의 평균수명이 점차 짧아지고 업종과 직업의 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 우물을 파는 인쇄인이 많아야 인쇄문화산업의 뿌리가 튼튼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지만 인쇄업을 '창업하기 쉬운' 업종으로 알고 쉽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명함이나 간단한 리플렛 정도를 취급하는 체인점 형태의 인쇄영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인쇄업을 경영하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주산업이라 일감 확보도 쉽지않고 일에 대한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평생 인쇄업에 종사 했다면 존경 받을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물론 한 업종에 오래 종사했다고 해서 모두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경 받을만한 발자취를 남겨야 후배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존경받는 원로인쇄인이 많아져야 이를 본보기로 삼는 후배인쇄인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 어느 조직이나 업종이건 선배들이 분열이나 일삼고 반목과 질시를 습관화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인쇄업이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인쇄인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걸어가길 기대해 본다. <편집주간>